

안전을 지키는 설 연휴

집에서 즐기는 언택트 문화 콘텐츠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설 연휴도 지난해 추석처럼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선물과 함께 마음만 보내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대했던 가족이나 친지와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연휴를 보낼 수는 없는 일. 설 연휴 동안 집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언택트 문화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부



랜선으로 즐기는 언택트 세계여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법은 바로 '랜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쉽사리 여행도 갈 수 없는 요즘, 이번 설 연휴엔 집콕하며 랜선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는 보는 것은 어떨까?

-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각국의 랜선투어 -

프랑스 관광청은 'Stay Safe'라는 카피와 함께 랜선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프랑스의 보물 45곳', '노르망디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 '랜선으로 떠나는 클로드 모네 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준비해 랜선여행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캐나다 관광청은 3D 촬영 기술로 박물관 전체 공간을 옮겨놓은 '바이타운 박물관 가상투어' 서비스를, 두바이는 인터랙티브 시티투어 사이트인 '두바이 360'을 통해 828m 높이의 부르즈 칼리파 빌딩에서 촬영한 두바이의 낮과 밤을 타임랩스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튜브로 즐기는 세계여행 -

보다 생생한 여행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행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보자. '베가 브라더스(Vagabrothers)'는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각 나라의 특색과 문화, 음식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작가 겸 프로듀서인 마르코, 영상·연출·편집 전문가인 알렉스의 합작으로 콘텐츠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비디오그래퍼 겸 포토그래퍼인 '벤 브라운(Ben Brown)'의 여행채널은 고성능 카메라와 드론 등의 전문장비를 활용해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하며, '에릭+앨리슨 부부(The Endless Adventure)'의 브이로그는 친근함을 무기로 다이나믹한 부부여행기를 선보인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집안에서 즐기는 취미생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집안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이지만, 이마저도 좀 더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취미생활' 만한 게 없다.

-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홈트 -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센터 등에서 하던 운동들이 속속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일명 '홈트족'이 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홈트 관련 용품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한정적인 공간을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법, 홈트족을 위한 온라인 클래스 등 다양한 홈트 관련 콘텐츠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 운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아기자기 취미활동 -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DIY키트 등 홈키트를 활용해 취미를 즐기는 일명 '홈하비(Home Hobby)족'이 늘었다. 학원이나 동호회에 가는 대신 여가 플랫폼에서 펜드로잉 수업을 구입해 따라 그리면서 Zoom을 활용해 피드백을 한다. 공방에서 진행되던 취미 클래스는 재료를 집으로 배송받아 온라인 VOD를 활용해 참여하기도 한다. 취미생활의 주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셈이다. 나만의 오롯한 공간에서 취미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 받는 추세다.

- 맛집 찾기? 이제는 '밀키트'가 대세! -

직접 맛집을 찾아가는 대신 밀키트를 이용한 상품도 인기다. 여가 플랫폼 '프랩'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담은 특산물 밀키트와 맛집들의 대표 메뉴 밀키트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미식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집에서도 지역의 특산물과 유명 맛집의 메뉴를 즐길 수 있어 젊은 세대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간식 큐레이팅 서비스, 반찬 배달 서비스 등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음식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